

대기전력 저감 전자제품 증가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도가 도입된 작년 8월 이후, TV·컴퓨터 등 7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모델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식경제부가 밝혔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은 '99년 이후 대기전력이 기준치보다 낮아 에너지 절감이 큰 제품에 표

시(권장사항)된다. 대기전력 경고표시 제품은 ('08.8월) TV, ('09.7월)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등 7개 제품 중 대기전력이 기준치보다 높은 제품에 표시(의무사항)된다.

작년말에 비해 '09.7.31 기준으로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모델수가 89.4% 증가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작년 말 ('08.12.31) TV 등 7개 제품의 '대기전력 저감 우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표시)



(대기전력 경고표시)

대기전력 경고표시 제도가 도입 된

작년 8월 이후, TV·컴퓨터 등 7대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모델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식경제부가 밝혔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다.

'수제품'의 모델수가 2,418개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기전력 경고표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09.7.1)된 이후인 '09.7.31 기준으로 재조사한 결과,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의 모델수가 4,580개로 지난해 말 보다 무려 8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별로는, 프린터(+289.7%), 복합기

(+182.6%), 컴퓨터(+115.1%)의 대기전력 우수제품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셋톱박스(+62.1%), 모니터(+59.5%), 전자레인지(+40.4%) 등도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TV의 경우에는 CRT TV의 대기전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제품의 모델수 증가(+7.1%)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RT TV는 LED나

구 분	08.12.31 기준		09.7.31 기준		경고 표시 모델수(개)	연간 에너지 절약효과(추정) (GWh)	비고 (경고 표시제 시행일)
	우수제품 모델수(개)	우수제품 모델수(개)	증가율(%)*	점유율(%)**			
TV	690	739	7.1	84.8	132	9	'08.8.28
컴퓨터	485	1,043	115.1	99.8	2	156	'09.7.1
모니터	797	1,271	59.5	97.9	2	166	
프린터	136	530	289.7	98.0	11	5	
복합기	167	472	182.6	97.5	12	112	
셋톱박스	29	47	62.1	97.9	1	17	
전자레인지	114	160	40.4	98.2	3	47	
계	2,418	4,262	89.4	96.3	163	511 (562억원)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 증가율은 '08.12.31 대비, ** 점유율은 '09.7.31 기준 전체모델수 대비 우수제품 모델수

대기전력 우수제품 모델수가 크게 증가

기업에서 제도 시행에 대비,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였고, 대기전력이 기준치보다 높은 모델의 생산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다.

LCD TV에 비해 대기전력이 2~3배 정도 높다.

이와 같이 대기전력 우수제품 모델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대기전력 감소로 인한 에너지절감 효과는 연간 약 562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이 크게 증가한 것은, 기업에서 제도 시행에 대비,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였고, 대기전력이 기준치 보다 높은 모델의 생산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제품구매시 경고표시 등을 꼼꼼히 살피므로써, 대기전력 우수제품이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고, 정부가 대기전력 저감 국가 로드맵(“Standby Korea 2010”)을 수립하고,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도’ 시행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기전력 저감 대상제품이면서 아직 경고표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오디오 등 12개 제품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모델의 점유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 오디오 등 12개 제품을 ‘대기전력 경고표시제도’ 대상품목에 추가하여 ’10.7.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전력 경고표시 제도는 TV,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합기, 셋톱박스, 전자레인지 등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 저감대상 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이고,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영규정(지식경제부 고시)이 있다.

